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에베소서 강해

그리스도인의 가정

(에베소서 5:18-33)

본문은 교회와 성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1. 성령 충만의 도구

18절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가정에 평안을 가져오고, 가정을 아름답고 건전하게 성장시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는 아름답고 깨끗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가정은 성령 받는 도구가 됩니다.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가정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도의 처음이고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병들고 흔들리면 사회와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2. 행복한 가정

(1) 순종하는 아내

성도들이 주님께 복종하듯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복종은 굴종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2절의 '복종하라'는 명령형이 아닌 분사형으로 앞에 있는 동사 '성령 충만을 받으라'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므로 피차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주께 하듯 복종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기쁨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2)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복종으로 대할 때 남편도 아내를 높은 수준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며 남편이 해야 할 사랑을 설명합니다.

- ①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 ②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 ③ 그리스도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 ④ 그리스도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 ⑤ 그리스도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순종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순종하고 피차에 사랑하므로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A Christian's family

(Ephesians 5:18-33)

This text describes the type of relationship that Christians should have amongst each other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1. An instrument filled with the Spirit

Verse 18 indicates that we must be filled with the Spirit. God gives us the fullness of the Spirit through our family. Anyone who is filled with the Spirit can bring peace to their family, and allow the family to grow in grace and health.

Just as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 and the church is made beautiful by a person filled with the Spirit, a husband and wife who are filled with the Spirit can also make their family pure. Therefore, a family can be an instrument filled with the Spirit.

The main purpose of a family is to please and glorify God. Moreover, another reason why a family is important is that it provides a system in which a human being has his or her first foundation. Therefore, if families in a society are unhealthy and unstable, the entire society and country are also negatively affected.

2. A happy home

(1) An obedient wife

When wives submit to their husbands as Christians to the Lord, a family of grace is formed. Submission here does not mean subservience, but obedience with a glad heart.

However, the word, 'submit,' in verse 22 is a participial construction, and not an imperative. It modifies the verb in the previous sentence, "Be filled with the Spirit." In other words, only the person who is filled with the Spirit can obey.

In a sense, we must all submit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Just as a wife submits to her husband as to the Lord, so also a husband must also submit to his wife with joy.

(2) Her beloved husband

Just as a wife must face her husband in the same way that we face Christ in love and obedience, so also a husband must face his wife with the same high standard of Christ. Jesus loved us till death on the cross. The apostle Paul describes the love that Christ had for the Church through His life, thereby explaining the kind of love that a husband must give to his wife:

- 1) Christ loved the Church
- 2) Christ sacrificed himself for the Church
- 3) Christ made the Church holy
- 4) Christ made the Church clean
- 5) Christ glorified the Church

My beloved Christians!

A Christian's soul must be filled with God, and respond in obedience, faith, and love. As we obey and love one another in the fullness of the Spirit,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successfully be a family full of grac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이종윤 목사, 원로·공로목사 추대되다

-서울강남노회 제 47회 정기회에서-

지난 11월9일 서울강남노회 제 47회 정기회가 회집되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2편5장27조에 의거 총대 전원 민장일치로 이종윤 목사를 서울교회 원로목사, 서울강남노회 공로목사로 추대기로 결의하였다.

우리교회는 지난 4월7일 정기당회와 8월15일 공동의

회 결의를 거쳐 상회에 청원한 것을 노회가 허락한 것이다.

우리교회는 오는 12월29일(수) 오후7시에 이종윤 목사 은퇴식을 갖고 원로목사·공로목사 추대식과 고희(古稀) 기념 논문집 헌정식을 갖는다.

2010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이종윤 목사의 요한 칼빈 『기독교 강요』 강해로 연일 은혜 넘쳐나

11월1일(월) - 27일(토) 새벽5시, 본당

11월1일(월)부터 시작된 특별새벽기도회에서 이종윤 목사의 요한 칼빈 『기독교 강요』 강해가 본당을 가득 메운채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11월27일(토)까지 주일을 제외한 24일간 계속되는 특별새벽기도회에서는 사명자 대회의 6가지 공동기도제목을 붙잡고 국가와 민족,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말씀 중심의 삶과 올바른 신앙의 체계정립을 이루도록 한다. 새벽을 가르며 달려나와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독교 강요 강해를 통하여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명예도로 칼빈길』, 지역주민 여론조사 76% 찬성

지난 11월6일(토), 7일(주일) 양일간 실시되었던 "삼성로 서73길"을 "삼성로 서73길(칼빈길)"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재실시한 결과 찬성 76%, 반대11.8%, 중간인장12.2%로 나타났다.

대치1동, 대치2동 주민(총 803명)을 대상으로 오즈리 서치의 훈련된 면접 조사원이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응답자와 Face to face interview에 의한 Field Survey 실시하였고, 95% 신뢰도 수준 오차율 3.5%p를 보였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가운데 표기 찬성이유를 조사

한 결과 "칼빈에 대한 호감 이미지"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교회 위상에 맞음"이 16.7%, "기독교 인이라서"가 8.3%로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기념되는 길이 되면 길의 지명도가 높아진다", "상징적 의미 부여에 찬성", "국제적 명칭 필요" 등 도로명에 "칼빈길" 이름이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희망한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다.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긍정적인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칼빈길"이 확정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끊임 없는 기도와 관심을 부탁한다.

새가족 환영회

11월 20일(토) 오후4시30분

2010년 제3차 새가족환영회가 11월20일(토) 오후4시30분에 801호에서 열린다. 2010년 7월18일 이후 등록한 새가족과 그 이전 등록된 분들 중에도 지난번 새가족환영회에 참석하지 않은 새가족 모두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다. 오후4시30분까지 801호에서 모여 찬양으로 준비한다. 서울교회 등록된 새가족들이 하나되고 잘 정착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한다.

『코람데오 서울교회, (1991~2010)』 출판된다

우리교회 20년사로 알려진 코람데오가 오는 12월에 본집과 화보집 두권으로 출판된다. 김독을 거의 끝낸 상태에서 최종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이 역사책은 개교회 역사를 넘어 한국교회사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아가페타운 2차공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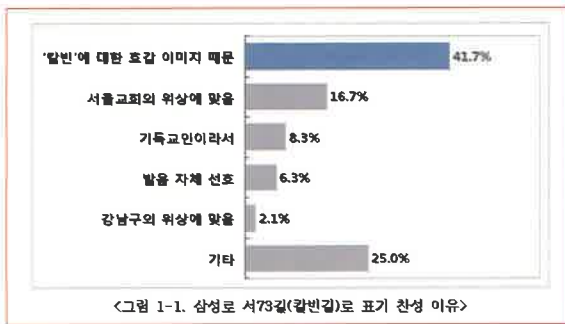
-『믿음의 집』으로 명명-

지난 8월 23일에 시작한 '아가페타운' 2차 공사가 10월29일 완공되었다.

2차 공사는 『믿음의 집』으로 명명된 1개 동으로 내부에는 중형 강당 2개를 설치하였다. 제1강당은 극장식 등반이 의자 200석으로 배치하여 멀티미디어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2강당은 마루바닥을 깔아 200~300명의 인원이 실내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



수능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

11월18일(목) 오전8시40분-오후6시5분, 501호

고등부(부장: 최영진 집사)는 수능 당일 18일(목)에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로 모인다. 시험시간에 맞추어 서울교회 교역자들의 인도로 찬양, 말씀, 간증 및 기도회로 진행되며 공동 기도제목, 과목별 구체적인 기도제목, 그리고 개인의 기도제목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구체적인 시간표는 다음과 같으며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시	시험영역	시험시간	기도회 인도	찬양 인도
1	언어	08:40~10:00(80분)	박노철 목사	정성남 목사
2	수리	10:30~12:10(100분)	한상은 목사 서명철 목사	한광민 목사
3	외국어(영어)	13:10~14:20(70분)	정수길 목사 문영준 목사	박종민 목사
4	사회/과학/적응탐구	14:50~16:56(126분)	유문건 목사 박광일 목사	정성남 목사 한광민 목사
5	제2외국어/한문	17:25~18:05(40분)	노현상 목사	박종민 목사

『코람데오 서울교회, (1991~2010)』 편찬용 전교인 단체사진 촬영

11월 21일 (주) 1부 예배 직후

연말 발간 예정인 서울교회 역사서 『코람데오 서울교회, 1991~2010』에 실을 전 교인 단체사진 촬영을 다음 주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1부 예배 주기도송을 마친 직후 그 자리에서 강단을 향해 손을 흔드는 전 교인(어린이 포함)

의 모습을 찍을 예정이다.

또한 2010년 당회원은 전교인 촬영 직후 별도로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가급적 단상 앞자리에 앉기 바란다.

목사 이종운 · 박사 이종운 - 목회자의 길 17

서울교회, 다른 교회를 섬기기 위해 태어나다

6월6일 현충일을 기하여 새벽5시 개전한 흥해작전은 삼천 명이 삼천오백명으로 사전, 오전, 팔전을 넘자 주일 출석수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새벽 흥해작전에 참여한다. 조선, 동아, 한국, 중앙, 경향신문들이 길선주목사 이래 최대의 회개운동이라 칭하면서 흥해작전을 극찬한다. 서울시내 택시가 새벽에 총동원되고 인천, 미야, 불광동 등지에서 버스를 대절해 교구식구들이 새벽을 깨우며 참여했다. 40일간 진행된 흥해작전 기간동안 부채의 4/5가 가려졌다. 이종운은 현금 설교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조용히 강해했다. 교인들이 변화된 것을 체험했다. 흥해작전이 끝나자 철야기도를 교구별로 연속적으로 하는 여리고 작전을 했다. 그해 12월21일 헌당식을 하고 그날 헌금은 지진피해를 입은 알바니아 난민 구호금으로 보냈다.



귀국후 성도들과 기도하는 이종운 목사

이종운은 기도원에서 제자훈련을 강행한다. 모든 제직은 반드시 유니폼을 입고 1박2일 프로그램에 참여케 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엔 500명 정도의 제직들이 버스로 기도원에 들어가 훈련받는 모습은 기드온 300명 군사훈련 같았다. 아시아 선교대회를 아시아 복음주의협의회와 함께 열어 1,800명의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대회를 열었다. 로잔2차세계대회(마닐라) 두 번째 저녁 전체모임에서 이종운은 Local church에 대한 발표를 한다. 세계복음주의 협의회(WEF) 교회 갱신위원장으로 WCC 7차대회(칸베라) 신학점검위원으로도 활동한다. 로잔 2차대회후 AD2000 Movement 아시아 대표로 한국대회 준비위원장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이종운은 국내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점차 자리를 굳혀갔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았다. 마침내 상상도 못할 누명을 쓰고 이종운은 흥해를 떠나야 했다. 교회 분열만은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종운은 즉시 미국으로 피신한다. 그 아픔과 고통을 누가 알랴! 발티모어의 어느 장로님 가정에서 밤늦게까지 예배, 기도, 예배, 기도를 했으나 위로가 없었다. 그 날밤 고요히 잠든 시간에 마14장에서 눈이 멎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시체를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 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빈들로 가셨다는 13절의 말씀은 이종운을 도끼로 치듯이 완전히 쪼개놓았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아셨으면 댜지 사람의 인정이 왜 필요한가! 그는 자유를 얻었다.

Coram Deo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이의 환희를 얻은 것이다. 그 해 웨스틴스터 신학대학원 신임총장 Logan박사 취임식에 축하의 말을 하기로 초청 받은 바 있어 학교에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자 로간은 이종운이 체류하고 있는 Baltimore에 차를 보내 만나기를 소원한다. 필라의 Holiday Inn로비에서 만난 두 사람은 흐느끼며 로간은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 로간은 당신 같은 사람 둘이 있으면 하나는 한국에서 다른 하나는 웨스틴스터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너를 보내신 것 같으니 두 주만 기다려 달라 한다. 이사회 소집을 하여 당신을 우리 학교 교수로 청빙하겠다 한다. 이종운은 대답을 못하고 듣기만 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다는 것이다. 이때 한국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고 아연실색을 한다. 성도들이 풍비박산 되어 흩어졌고 몇십명씩 따로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어느 성도는 교회에 대해 실망을 하고 절간으로 갔다는 소식이 왔다. 이종

운은 자신이 목사소명을 받을 때부터 50세 이후엔 목회를 하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한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머물수가 없어 즉시 필라델피아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날아 갔다. 누님댁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생각을 정리한 후 그 지역에 거주하는 형제들을 모아놓고 미안한 마음을 토하고 기도를 함께 하면서 귀국결심을 발표한다. 인근 이발소를 찾아가 바울이 서원이 있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밀 듯 이종운은 삭발을 하고 귀국한다. 김포공항에 2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귀국환영차 출영을 나왔다. 이종운이 감격하여 눈시울이 뜨거워져 공항에서 기도를 하자고 모자를 벗는 순간 와- 하며 성도들은 삭발한 이종운을 보고 흐느끼면서 기도했다. 그 날이 화요일인지라 이미 지난 주일에 창립예배, 공동의회를 거쳐 이종운을 위임목사로 청빙했다고 한다. 수요예배 강단에 선 이종운은 의연한 모습을 보였으나 속으로는 계속 울고 있었다.

교회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배처소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성도들은 논현동 전인화 권사가 지은 새빌딩에 입주키로 하고 4층에 이미 입주한 상가를 내 보내고 7층 전층을 사용키로 했다. 찬 마루 바닥에서 접는 의자를 강대상 뒤에 놓고 예배하는 성도들은 그날부터 매번 예배시마다 울음바다였다.

이종운은 교회이름을 성경대로 하자고 했다. 고린도교회, 예베소교회처럼 지역명을 따는 것이 성경적이라 하니 누군가가 서울교회라고 외치자 모두가 놀랐다. 아직 교단 가입이 안되었으니 서울장로교회로 하였다.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설립위원들 가운데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렇다면 서울교회는 왜 세워져야 하나.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서울교회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라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1991년 추수감사주일에 교회 간판을 걸고 이듬해 3월부터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목회자세미나를 개교한다. 강남 YMCA강당을 빌려 전국에서 몰려오는 500여명의 목회자들에게 김밥준비를 하는 권사회, 주차위원, 안내위원으로 수고하는 장로, 집사들의 수고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손과 발이 되어 이루어져 갔다. 이종운이 시무하던 교회가 교계신문에 특별광고비를 들여 이종운씨 가짜목사 사기 횡령 등의 죄목 광고를 의뢰하였으나 기독교보 광고국장이 신문윤리에 어긋나는 광고요 복음에 유익하지 못한 광고를 아무리 돈을 받았어도 실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절하고 타신문사에 까지 모든 광고를 철회케 했다. 그후 서울교회는 합동측 수도노회에 가입 청원 했으나 서울교회가 들어오면 큰집(?)이 나간다면 가입 청원은 거절당했다. 그무렵 제직회에서 교단 가입문제가 인건으로 나오자 모든 제직들은 이종운 목사 가는 곳에 서울교회는 함께 가는 것이니 목사님께 위임동의가 나오자 이종운은 당회로 위임해 달라는 수정 제의를 하여 통과시켰다. 당회는 고려파나 개혁측 얘기가 나왔지만 갈팡질팡 할 무렵 지난번 흥해교회 광고요청을 거절한 신문이 어떤 신문이었나요. 그런 양심이 살아있는 신문사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나오자 우리 교회가 죽은 양심에 도전하기 위해 세워졌으니 그 교단이 어느 파나고들 물었다. 기독교보가 통합측 신문이라고 하자 통합측에 가입키로 동의 제청이 나오고 쉽게 결정했다. 당회원들은 무릎 꿇고 엎드려 감사기도 한다.

(다음 호 계속)

사명자의 기도

사명자로 바를 성도 되게 하소서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사모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거룩함으로 연합하여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의 계절에 사명자로 하나님 면전에서(Coram Deo)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역사의 주권을 섬리하시는 하나님! 사명자로서 대신자와 잃은 양 찾게 하옵소서.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사명 감당하여 세계 복음화, 교회 천국화, 문화 기독교화로 서울교회가 모범되게 하소서. 1교단 다 체제를 통한 한국 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혼돈과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와 민족이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종운 목사님의 요한 칼빈 "기독교 강요" 강해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목회 하시는 이종운 위임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부르심에 순종으로 본을 보이시고 목회 비전을 간구하시는 박노철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교회가 섬김의 전통 따라 큰 부흥의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듣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도록 바른 신학으로 바른 교회에서 허락하신 사명 품고 사명자로 바른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 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자로 날마다 주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주시고 성취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최규초 집사

☞ **만민에게 전도 - 선교사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꿈

박진영선교사, 김미성선교사
(방글라데시 파송 예정)



저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명의 땅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죄악 가운데 고통 받아 죽어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꿈에 대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세상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창 시절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알게 되니 내 꿈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꿈은 1억 6천만명의 방글라데시 복음화입니다. 월리엄 케리가 첫 발을 내딛어 복음을 전한지 2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기독교가 0.3%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꼬람플라병원에서 외과의사로서 환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하며 전도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교회를 섬기는 교회'인 서울교회처럼 '또다른 선교사'가 아닌 '서울교회 선교사'로서 현지교회들을 중점적으로 섬기고, 현지 사역자들과 교제하고 배우면서 방글라데시 교회들이 든든히 서도록 쓰임 받는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선교의 주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시며, 보내시는 그리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방글라데시에 이미 이루어진,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방글라데시 영혼들을 이해하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선교사 가정되기를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의 모든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긍정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땅의 예비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 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와 대전 핸드벨 콰이어의 찬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들린다. 합주곡으로 "항상 진실케(P.S.Cota)"와 7곡과 앙상블로 "오 거룩한 밤(K.McChesney)", "할렐루야"를 연주한다. 지휘자 송재필집사는 한국핸드벨콰이어 협회 총칭, 영호남지부장이며, 경성대학교와 침례신학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2010 가을 화요정오음악회



이번 주 화요정오음악회는 김현정 오르간 독주회 (서울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열린다. 김현정선생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회음악과(B.M.) 및 동대학원(M.M.) 졸업, 프랑스 리옹 국립고등음악원(CNSMD de Lyon)수페리아과정 졸업(DNESM),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콘서버토리 교환학생 수학, 제3회 독일 에어푸르트 국제오르간 콩쿠르 2등, 현 연세대, 한예종, 장신대, 침신대, 백석예술대 출강,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수고하고 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8일 (목) 한장총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득녀: 오현식 성도 장지운 성도(12교구, 장덕 집사 임인자 권사 장녀)

■ 주간식당 봉사: 도르가전도회(11.14) 루디아전도회(11.21)

■ 금주의 식사 : 이관규 장로 이순영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천국시민양성**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

이계홍 집사(사랑부 부장)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금년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자라게 하시고 햇빛과 비람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추수 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감사하여 14일(주)오후 2시 웨스트민스터홀(101)에서 사랑부 학생들이 마음을 모아 제4회 천사들의 음악회를 갖습니다. 많은 시간동안 준비하며 때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미소를 잃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 사랑부 학생들의 찬양은 하늘의 천사도 흠모할만한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참여하셔서 격려해주신다면, 이 모든 사랑을 저들이 기억하여 삶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크게 보여도 신앙을 위에 두고 호흡이 다 할 때까지 하나님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음악회를 준비하며 오랜 시간동안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성도님들의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2010 사명자 대회 특별 새벽기도 위하여
4. 국가의 평안과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위하여

교회오시는 길

